

한방 테라피 의료관광 체험의 여가 심리학적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isure Psychological Model of
Medical Tourism Experience by Oriental Medicine Therapy

이 태 숙** · 김 철 원***

Lee, Tae-Sook · Kim, Chul-Won

ABSTRACT

This study would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Oriental Medical Tourism and satisfaction, and the structure of medical tourism experience is discriminated by both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to verify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with leisure psychological factors. Experience are classified by 'Natural/ Environmental', 'Physical/ Sensibility', 'Social/ Relationship', 'Intellectual/ Internal', and 'Affective' components. The study revealed that 'Natural/ Environmental', 'Physical', 'Intellectual/ Internal' experience, which are cognitive components influences 'affective' components by showing that it is statistically meaningful. Moreove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components and leisure satisfaction, 'Intellectual/ Internal' experience affects leisur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 a statistical meaning. This study provides academic implication for investigating cross-cultural differences between western-oriented medical tourism and oriental medical tourism, while the study had several flaws in terms of limited research area and short-period survey.

핵심용(Key words) : 한방의료관광(Oriental medical tourism),
여가 체험(Leisure experience),
인지적 체험(Cognitive experience),
정서적 체험(Affective experience)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32-2011-1-B00685).

** 순천제일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e-mail: tsyi1010@hanmail.net

***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e-mail: kimcw@khu.ac.kr

I. 서 론

한방의료관광은 기존의 양방 의료관광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의료관광 분야이다. 서양의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 등을 추적하여 수술하고 항암제 등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의료분야이며, 한방의학은 인간 본연의 자연치유력을 강화시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료 분야이다(하경희, 2011). 또한 한방의학은 천연물을 가공시킨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가공을 통한 양약보다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 웰빙시대의 추세에 부합함으로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한방 의료관광은 최근 한방웰니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한방리조트, 한방스파센터 등 한방 치유와 건강관리가 연계된 한방의료관광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한방의료관광은 한방 건강검진과 같은 치료 및 건강증진 활동뿐만 아니라, 마사지 또는 스파와 같은 미용체험, 음료나 음식 등을 이용한 다이어트 등의 건강관리 활동에까지 체험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체험은 동양의학의 근본이 되는 오행사상을 배경으로 테라피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체험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한방의료 관광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는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관광 연구는 최근 집중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미진하며, 더욱이 여가활동으로서의 한방의료 관광 수요자들의 욕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한방의료 관광 체험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의료관광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험의 구조파악과 함께 체험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체험 구조에는 정서적 측면의 견해(Farber & Hall, 2007)와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의 이중구조로 보는 견해(성영신·고동우·정준호, 1996)가 있으며, 이미 여가관광체험과 관련하여 인지적 체험이 정서적 체험을 유발한다는 사실들이 제기되고 있다(Farber & Hall, 2007; 정윤조·전병길, 2009). 한방의료관광 체험은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를 추구하는 활동지향적 여가체험과는 달리 정적 여가로서의 차별화된 구성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다른 육체적 체험 요소도 잠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의료관광 체험을 규명함에 있어서 여가심리학적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 차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한방의료관광의 여가심리학적 체험 차원과 한방의료관광 만족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나아가 한방의료 관광 연구 영역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방의료관광(Oriental Medical Tourism)

세계적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개념에서 건강유지, 증진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한방관광을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의 독창적인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한방의료관광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최승국·김화경, 2005). 최근 동의보감이 중국의 황제내경을 물리치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됨으로써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한방의 체계성과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한방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기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한방을 한국인들의 전통의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양 시각에서의 한방은 '대체의학'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중국 및 인도 등 각 민족들의 전통요법 등도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과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으로 표현한다. 대체의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서양의학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서양 정통의학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의학,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의학, 각 나라 및 민족의 전통 의학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의사 제도가 있고, 정규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의 정통의학의 범주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경남발전연구원, 2010).

아직까지 한방의료 관광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선행연구에서는 한방관광, 한방보양관광과 같은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용어의 통일 및 한방의료 관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이충기·유지윤·임은순(2010)은 한방의료 관광에 대해, '한방 검진 및 치료, 한방음식, 한약재 쇼핑 등의 한방관광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산리치료, 온천, 해수, 마사지, 요양, 스트레스 관리, 미용 등의 다양한 건강촉진 활동을 포함하는 헬스관광'으로 정의하였으며, 윤병국·최성환·최원범·남승민(2012)은 '질병치료, 건강증진 및 한방미용 체험을 목적으로 전통 한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인간의 재생력(rejuvenation)·정신적(mentally)·육체적(physically)·감성적(emotionally)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상, 기체조, 약선, 한식체험 등을 포함한 웰니스(wellness)와 한방 헬스케어(healthcare)를 결합하는 관광의 유형'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볼 때 한방의료관광은 기본적으로 한방의료와 휴양 및 요양 관련 관광산업이 결합된 형태로 요약되어진다. 이러한, 한방의료 관광은 의료관광 관련 각 협회나 단체

가 발족할 즈음인 2005년부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제도 한방의료 관광에 대한 실태 및 국가정책 방향, 지자체의 수용태세 정비, 마케팅 홍보 방안, 각 나라의 의료관광 대응전략, 대학 및 단체의 의료관광 인력 양성 등의 관점이 주를 이룬다(윤병국·이은미, 2012). 이처럼 행태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방의료관광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함이 시사된다.

2. 여가체험 및 여가 만족

체험의 범주에는 인간의 모든 환경적,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를 제한하기가 매우 어렵다. 체험이 활동을 하는 동안 참여자가 지각하는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처럼(김창섭, 2008), 그것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체험을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려운 변수로 간주된다(Knutson & Beck, 2003). 즉, 체험의 본질은 고도의 의식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여가 체험(leisure experience)은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과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파생되어 겪게 되는 사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주관적 체험을 일컬으며 경험이 대상과의 얼마간의 거리를 예상하는 것에 반해 체험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촉을 의미한다(노혜영, 2003). 관광을 포함한 여가체험이 단 한 가지 종류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체험의 맥락 역시 다양하게 얽혀있다는 사실로부터 타당한 추론이 될 수 있다. 이는 여가는 활동 자체와 그 주변 상황에 관련된 속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특정 활동 자체가 지닌 고유한 속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체험과 여가 활동과 관련된 주변 여건과의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방의료관광의 체험도 한방 관련 고유의 체험 속성과 주변여건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체험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체험 분류

구분	내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고유 체험	심미성, 교육성, 지적배양, 창의적 표현, 성취감
활동 맥락에 따라 주변 여건과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험	일탈, 자연교류, 신기성, 권력감, 자유감, 대인교류, 시간 때우기, 신체적 자극, 유행심리, 편안함

자료: 김소혜(2008). 고급문화 예술 여가 참여자의 여가동기, 여가체험 및 사후 평가 간의 관계: 박물관 체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가 체험 유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인지적 측면과 복합적인 정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되기도 한다(고동우, 2002). 인지적 측면의 체험은 그 느낌이 어떤 맥락에서 도출되는가에 따라 활동지향적, 사회지향적, 환경지향적 체험으로 나뉜다(성영신 외, 1996). 활동지향적 체험은 참여자 자신이 활동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며, 여가활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참여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체험내용은 양적·질적으로 달라진다. 사회지향적 체험은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환경지향적 체험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특성을 지향한 내용으로 자연에 대한 정보이나 동화의 감정에 관한 對 자연감, 인공 시설에 관련한 편리함 등의 속성이 포함된다(성영신 외, 1996). 이러한 인지적 체험 요소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며,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약간의 상이점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지적 체험 선행연구

연구자	활동지향적 체험	사회지향적 체험	환경지향적 체험
Beard & Ragheb (1980)	자유감, 관여, 지적 도전, 지적자극	대인교류, 자기와 주변 알기	
Lee, Dallito, & Howard(1994)	일탈감, 지적배양, 숙고, 창의적 표현, 다른 생각하기, 신체적 자극	사회적 교류, 이해감	자연교류
성영신 외(1996)	자유감, 유능감, 모험감, 신체적 역동감, 일탈감	자기표현감, 고독감, 대인교류감, 유행심리	대자연감, 편리함

자료: 성영신 외(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17-40.

한편, 여가활동의 특성상 개인의 동기나 기대가 변하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았던 동기나 기대가 새롭게 유발될 수 있어 여가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강윤진·김나민·이문규, 2008). '정서'란 감각을 매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인간의 심리적 능력이나 반응을 말하며, 내밀한 인간심리의 한 과정을 나타내므로 통일된 개념 정립이 쉽지 않은데 학자들 간의 의견 또한 다양하다(김지영, 2003).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에 나타나는 기본 정서로 분노, 두려움, 기쁨, 슬픔, 놀람 등을 들고 있다(Plutchik, 1994; 최미란, 2002). 여가활동의 경우 다양한 여가 욕구가 실현될 때 참여자들은 대개 '재미', '즐거움' 또는 '편안함' 등 복합적인 정서를 체험한다. 이처럼 여가체험을 정서적 측면에서 찾게 된 것은 여가활동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지니는 한계 때문으로

간주되며, 또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여가체험의 특성상 인지적 평가를 통해서서는 여가체험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지각과 감정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그 맥을 같이한다(Farber & Hal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적 체험은 인지적 체험의 구체적인 차원들을 유기적으로 경험할 때 동반하는 체험이라 할 수 있으며(성영신 외, 1996), 학자별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정서적 체험 요소

학자	내용
성영신 외(1996)	재미, 즐거움, 편안함, 몰입, 기분전환, 긴장, 흥분, 익숙함
권익현·유창조(1997)	즐거움, 작성, 지배
Chhetri, Arrowsmith, & Jackson(2004)	즐거움, 편안함
Bigne, Andreu, & Gnoth(2005)	감정체험(즐거움/ 작성)
Lee, Shafer, & Kang(2005)	감정체험

자료: 선행연구 토대로 논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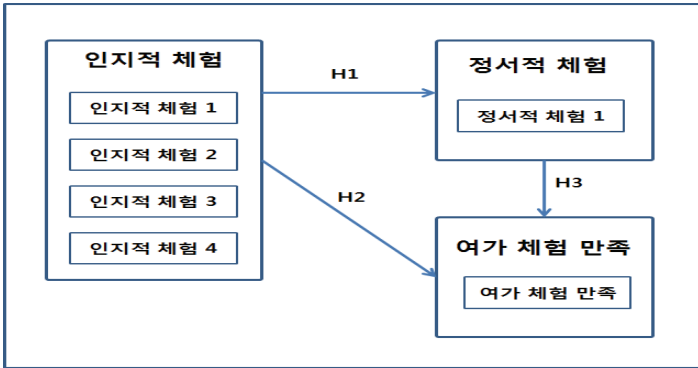
한편, 개인이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많은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 왔으며, 여가만족은 오랫동안 여가경험의 중요한 결과로 인식되어 왔다(Knapp, 1976). 여가만족은 특정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및 욕구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긍정적 인식 또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표현하며(Neulinger & Raps, 1972; 정성한, 2008; 재인용),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발생한다.

Van Raaij(1987)은 여가만족에 대해 미리 기대한 수준과 실제로 경험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감정의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즉,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 기분이 좋으면 만족한 것으로, 그와는 달리 기대한 것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불만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 참여자의 만족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다. 많은 학자들은 체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만족도를 사용한다. 만족도에 따른 체험특성 평가를 통해 체험의 어떤 특성이 관광객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만족도가 높게 지각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 체험의 상품가치를 높여 주는 특성이므로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한방의료관광 체험 평가에 있어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각 체험영역의 영향력과 체험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다음의 <그림 1>은 한방 의료관광 체험의 여가심리학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인지적 체험 차원과 정서적 체험 차원 및 체험 만족간의 관계가 포함된 연구설계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성영신 외(1996)은 여가관광체험에서 다양한 인지적 체험(자연동화감, 대인교류감, 자기성장감 등)이 재미, 즐거움, 편안함, 기분전환 등의 정서적 체험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고, Farber & Hall(2007)도 자연관찰(viewing scenery)이나 야생관찰(viewing wildlife) 체험이 각성이나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운조·전병길(2009)도 자연동화감과 자기 성장감의 인지적 체험이 이완과 즐거움의 감정 체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의료관광 체험에서의 인지적 체험 요소가 정서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한방의료관광객이 지각한 인지적 체험요소는 정서적 체험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적 반응과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감정과 만족 간 연구는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지희·윤설민, 2011). Bigne, et.

al.(2005)은 테마파크 체험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적 반응(기대-성과 불일치)과 감정체험(즐거움/각성)과 방문객의 만족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고동완(2003)과 오정학·김유일(2001)도 스키장 및 주제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지적 반응을 감정체험과 통합하여 여가관광체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체험적 요소와 만족간의 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de Rojas & Camarero(2008)는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험, 감정, 만족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면서 즐거움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Bigne, Mattila, & Andreu(2008)는 체험 소비에 대한 감정적 요소인 즐거움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Ladhari(2007)의 연구에서도 쾌락적 상품인 영화에 있어서 정서적 요소인 즐거움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윤설민·이태희, 2012), Oh, Fiore, & Jeoung(2007)도 체험 대상에 대한 즐거움은 만족도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방의료관광 체험에서도 체험적 요소가 여가 체험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와 연구가설 3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한방의료관광객이 지각한 인지적 체험 요소는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3] 한방의료관광객이 지각한 정서적 체험 요소는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2. 조사방법

한방의료관광은 한방자원과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한방관광상품으로 형성된 것으로 한방치료 및 건강 체험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행, 자연감상, 문화체험, 휴양 등이 동반되는 형태여서 일반 여가활동과는 환경적 요소나 활동적 요소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의 인지적 체험 속성을 도출하고자 하며, 조사는 한방의료관광지에서 체험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의 한방 의료관광단지는 산청의 '전통 한방 휴양관광지', 익산의 '한방 도시', 원주시의 '의료관광 리조트', 제주도의 '한방테마 관광타운' 등이 있으며, 경북 안동시의 경우 전통한옥을 의료서비스에 적용, 체류형 의료관광 모델을 특화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즉, 안동병원의 '굿모닝 헬스투어'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마친 뒤, 하회마을, 도산서원을 관광하는 1박 2일 코스가 포함되며, 꽃마을경주한방병원도 빈혈, 초음파검사, 경락기능검사, 사상체질 검사들을 실시하고,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주변 관광명소를 관람하면서 병원이 제공하는 자연치유식과 함께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2곳(제천 한방 명의촌, 경주 꽃마을 한방병원)을 선정하여 2011년 11월 2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4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하였다. 이들 2곳은 관광객들의 이용이 가장 꾸준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들 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곳으로, 특히 '경주 꽃마을 한방병원'은 대한민국 보건관광 제1호로 지정된 병원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두 지역에 각 1차례씩 방문하여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활동의 동의를 구한 뒤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섭외시 체험장 내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알린 뒤 면접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주제를 감안하여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간단한 다과 및 음료를 제공하였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진 경우 녹취를 하였고, 녹취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엔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다. 인터뷰 시, 참여자의 의견을 끝까지 충분히 청취한 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탐색질문을 통한 보완으로 자료 누락을 최소화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10명으로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심층 인터뷰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제천				경주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	동반형태 및 특성	구분	성별	연령	거주지	동반형태 및 특성
P1	남	20대	서울	커플참여 (2인여행)	P2	여	20대	경기	가족(부모) 참여 (4인여행)
P4	남	30대	경기	가족동반(부모님 동반)	P3	여	30대	경상	친구와 참여(3인 여행)
P6	여	40대	경기	친구와 참여(2인 여행)	P5	여	30대	경상	소모임 참여(5인 동반)
P8	남	40대	충청	소모임 참여(5인동반)	P7	여	40대	경상	소모임 참여(4인 동반)
P9	남	50대	강원	부부참여(2인여행)	P10	여	50대	서울	소모임 참여(4인 동반)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된 면접질문지를 기초로 해서 1회 당 30분에서 45분 내외로 진행하였고,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기초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질문하면서 연구대상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Miles & Huberman, 1994).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메모 및 녹취 내용의 전사

작업(transcribing)을 거쳐 문서로 전환한 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자료 수집을 중단할 때의 판단 기준은 이론적 포화(saturation)를 적용하였다. 이론적 포화는 연구자가 면담을 통하여 관련 요인으로 발전시킬 자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며 비슷한 경우가 반복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때이다(Glaser & Strauss, 1967). 인터뷰에서 질문의 순서와 내용은 Patton(1980)의 지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을 먼저 질문한 후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핵심 주제와 항목들은 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연구자의 상호검증(peer debriefing)과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 평가(member check) 방법이 활용되었다(Lincoln & Guba, 1985).¹⁾ 설문조사 역시 표본 대상은 한방의료관광객이며, 조사는 2011. 12. 10- 2012. 2. 12.까지 매주 주말에 제천과 경주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일환인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질적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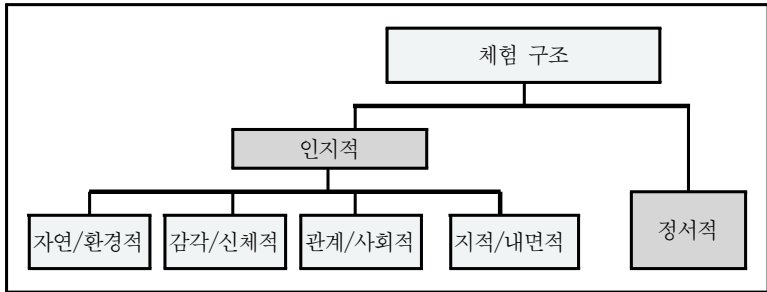
녹음된 자료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면접자가 언급한 체험내용을 목록형태로 기록하였으며 2회 반복하였다. 표현상으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묶이거나, 유사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다른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애매한 사항들은 인터뷰 녹음을 반복 청취하여 응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사한 단어와 문장을 분류하고, 참여자 의견의 빈도 및 강도를 고려하여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였다.

1) 인터뷰 자료에 대해 동료 연구자와 내용 분류, 핵심 단어 연합 등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구성된 검토과정, 즉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 평가(member check) 과정을 거쳤으며(분석 과정에서 불일치되는 요소들은 일치점에 도달할 때까지 적절한 자료와 핵심단어를 재검토하고 연합함으로써 해결), 이처럼 주요한 의미를 찾고 추출하는 분석과정은 동료 연구자에 의한 조연과 지적, 즉 동료연구자의 상호검증(peer debriefing)에 의해 진행되었음.

〈표 5〉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분석 결과(42개 항목)	정제(26개항목)	구분
1. 자연과 교류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	자연/환경적
2.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	
3. 자연과 함께 하는 편안함이 있었다.	○	
4. 자연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였다.		
1. 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었다.		감각/신체적
2.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		
3. 나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4. 장소는 주변 환경 및 분위기를 통해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였다.	○	
5. 장소는 한약재를 통해 후각적 요소를 제공하였다.	○	
6. 장소는 시설물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촉각 요소를 제공하였다.	○	
7. 장소는 배경음악을 통해 청각적 요소를 제공하였다.	○	
8. 장소는 건강 관련 음료 제공을 통해 미각적 요소를 제공하였다.	○	
9. 체험을 통해 신체적인 역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	
10.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제공하였다.	○	
11. 신체적인 휴식을 제공하였다.	○	
12. 신체적인 긴장을 해소해 주었다.	○	
13. 여가활동의 경험을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적용하고 싶다.		
1. 체험 제공자와 체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교류할 수 있었다.	○	관계/ 사회지향적
2. 참가자들과 대인간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		
3.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었다.		
4. 동반한 참가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	
5. 인간관계가 더 친밀해졌다.		
6. 동반한 참가자와 생각이나 느낌을 교류할 수 있었다.	○	
7. 이번 체험이 중요한 대인교류의 기회였다.		
8. 체험 제공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	
9.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울림이 좋았다.		
1. 짜릿한 기분을 제공하였다.		정서적
2. 신나는 기분을 느꼈다.	○	
3. 신뢰감을 제공하였다.		
4. 편안함을 느꼈다.	○	
5. 평화로움을 느꼈다.		
6.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		
7. 행복감을 느꼈다.	○	
8. 즐거운 기분을 느꼈다.	○	
1. 나의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		지적/ 내면적
2. 호기심 자극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제공하였다.	○	
3. 창의적인 체험을 제공하였다.	○	
4.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5.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였다.	○	
6. 탐색적 체험이 가능하였다.	○	
7.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	○	
8.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였다.	○	

분석 결과 총 42개의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항목들은 ‘자연/환경적’, ‘신체/감각적’, ‘사회/관계지향적’, ‘정서적’, ‘지적/내면적’으로 범주화되었고, 이들 중 ‘자연/환경적’, ‘신체/감각적’, ‘사회/관계적’, ‘지적/내면적’ 체험은 인지적 차원으로 규범화되었다.



인지란 어떤 사실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서, 한방의료관광의 인지적 체험은 한방의료관광에 참여해서 습득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방 건강검사(경락기능 검사, 생혈액 검사, 스트레스 검사, 홍채검사, 심혈관 기능 검사, 사상체질검사, 골밀도 검사), 뜸, 침, 기계 마사지, 온열 치료, 한방 주름제거 팩, 한방 발관리, 약돌 좌훈, 한방 건강차 시음 등의 한방의료관광 체험시 다양한 여가 욕구가 실현되면서 나타난 인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방의료관광체험으로 인해 느낀 ‘재미’, ‘즐거움’, ‘행복함’, ‘짜릿함’, ‘신뢰감’, ‘신선함’, ‘편안함’ 등의 정서적 체험을 유발한 체험이며, 여기에는 자연에의 동화, 일탈감, 신기성, 긴장해소, 지적충족, 신체적 역동감, 사회적 교류감 등이 해당된다.

한방의료관광의 정서적 체험은 한방의료관광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한방 건강검사(경락기능 검사, 생혈액 검사, 스트레스 검사, 홍채검사, 심혈관 기능 검사, 사상체질검사, 골밀도 검사), 뜸, 침, 기계 마사지, 온열 치료, 한방 주름제거 팩, 한방 발관리, 약돌 좌훈, 한방 건강차 시음 등을 체험할 때 감각을 매개로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적 능력이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미’, ‘즐거움’, ‘행복함’, ‘짜릿함’, ‘신뢰감’, ‘신선함’, ‘편안함’ 등이 나타났다.

42개의 항목들을 다시 동료연구자의 상호검증과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 평가 방법으로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26개의 지표로 축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문을 완성하였다.

〈표 6〉 설문 변수

구분	내 용		척도
여가체험	인지적 체험 (22)	자연/환경적 (3), 감각/신체적 (9), 관계/사회적 (4), 지적/내면적 (6)	등간
		정서적 체험 (4)	등간
여가만족	심리적 만족, 사회적 만족, 신체적 만족, 환경적 만족 (4)		등간
인구통계적 변수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 거주지 (6)		명목, 비율, 서열

2. 실증조사 분석

본 설문조사 결과 총 30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설문 27부를 제외한 281부의 설문을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신뢰성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다.

1) 표본 특성

응답자는 남성이 45.2%, 여성이 54.8%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50대(26.7%)와 40대(26.0%)가 가장 높게 분포하였으며, 대학재학/졸업이 45.2%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이며, 직업은 학생(14.9%)과 주부(13.2%)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았음에 기인한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합계		특성	합계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 성	127	45.2	100만원 미만	13	4.6	
	여 성	154	54.8	100-200만원 미만	33	11.7	
학력	고졸 미만	37	13.2	소득	200-300만원 미만	45	16.0
	고 졸	70	24.9		300-400만원 미만	79	28.1
	대학재학/졸	127	45.2		400-500만원 미만	41	14.6
	대학원 재학/졸	45	16.0		500만원 이상	55	19.6
	연령	20대 미만	17		6.0	강원도	15
연령	20대	43	15.3	경기도	36	12.8	
	30대	43	15.3	경남	34	12.1	
	40대	73	26.0	거주지	경북	49	17.4
	50대	75	26.7		광주	-	-
	60대	28	10.0		대구	28	10.0
	직업	자영업	39		13.9	대전	3
사무/관리직		40	14.2		부산	36	12.8

전문직	45	16.0	서울	41	14.6
서비스직	9	3.2	울산	11	3.9
기술직	17	6.0	인천	1	.4
학생	42	14.9	전남	9	3.2
농/축/어업	9	3.2	전북	1	.4
주부	37	13.2	제주	1	.4
공무원/군인	23	8.2	충남	2	.7
무직	5	1.8	충북	9	3.2
기타	13	4.6	기타	2	.7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수(30개 항목)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을 이용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회전을 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변수(여가활동의 촉각적 요소 제공, 여가활동 장소의 청각적 요소 제공)가 요인적재량의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되었고, 이들을 제외한 28개의 변수로 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KMO값이 0.940으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 결과(유의확률 0.000)에서도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이 매우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요인은 6개로 분류되었으며, 요인1은 '지적/내면적', 요인2는 '자연/환경적'으로 요인3은 '신체적', 요인4는 '만족', 요인5는 '관계/사회적', 그리고 요인6은 '정서적'으로 명명하였다.

〈표 8〉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항목	요인 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 설명력	커뮤널 러티	신뢰 도
요인 1 (지적/ 내면적)	5_4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 유발	.730	3.921	13.071	.715	.884
	5_1 새로운 지식 얻게 됨	.705			.640	
	5_6 탐색적 체험 가능	.681			.674	
	5_5 특별한 가치 제공	.667			.598	
	5_3 창의적인 체험 제공	.635			.637	
	5_2 호기심 자극 통해 창의적인 사고 제공	.629			.620	
요인 2 (자연/ 환경적)	2_1 주변환경 및 분위기(인테리어나 전반적 스타일)를 통해 시각적 요소 제공	.757	3.516	11.721	.676	.862
	1_2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에 즐거움 느낌	.741			.698	
	1_1 자연과 교류하는 것에 즐거움 느낌	.693			.686	
	1_3 자연과 함께 하는 편안함 느낌	.675			.662	
	2_2 후각적 요소 제공	.675			.596	
	2_6 체험을 통해 신체적인 역동감 느낌	.740			.645	
요인 5 (신체적)	2_9 신체적인 긴장 해소해 줌	.667	3.371	11.235	.604	.906
	2_7 신체적인 활동 많이 제공	.656			.630	

	2_5 건강 관련 음료 등으로 미각적요소 제공	.624			.617
	2_8 신체적인 휴식을 제공	.569			.644
	6_2 신체적 만족을 느낌	.834			.892
요인 4	6_3 심리적 만족을 느낌	.829	3.366	11.219	.880
(만족)	6_1 환경적 만족을 느낌	.747			.804
	6_4 사회(관계)적 만족을 느낌	.702			.708
	3_2 체험 제공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	.849			.833
요인 3	3_1 체험 제공자와 체험에 대한 생각이나				
(사회/	느낌 교류	.835	3.363	11.210	.787
관계적)	3_4 동반한 참가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	.793			.776
	3_3 동반한 참가자와 생각이나 느낌 교류	.781			.742
	4_2 신나는 기분을 느낌	.778			.825
요인 6	4_3 행복감을 느낌	.736	3.123	10.409	.788
(정서적)	4_1 즐거운 기분을 느낌	.683			.747
	4_4 편안함을 느낌	.659			.73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 SMC)에서 0.4이하를 나타내는 항목이 2개(주변환경 및 분위기를 통한 시각적 요소체험, 여가활동 공간에서 후각적 요소 체험)가 확인되어 이들을 제거한 후 재분석하였다. 다중상관치가 0.4 이상의 값을 보이면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0.4이하를 나타내는 항목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카이제곱은 491.584, 자유도는 284, 통계량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0.05이상일 때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값이다. 이러한 카이제곱 통계량은 변수가 많고 자유도가 높은 경우 모형의 자료에 적합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카이제곱/자유도의 값이 검토되고 있다. 김계수(2004)는 카이제곱/자유도의 값이 3보다 적어야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1.731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는 GFI .881, AGFI .853, RMR 039, NFI .909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부합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적 모형 기준치에 약간 미흡한 지수로 보여진다. 최근 적합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선호되고 있는 또 다른 지수는 CFI와 Delta2 IFI가 있으며, CFI와 Delta2 IFI는 모두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되고 있다(김계수, 2004). 따라서 이들의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 CFI는 .959, Delta2 IFI가 .960으로 나타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러한 지수에 의해 모형의 적합함을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수들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항목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 R. (t값)	P	AVE ^a	개념신뢰 도 ^b
자연/환경적 요인	1_3	1.000	.838	-	-		0.711	0.881
	1_1	.874	.799	.060	14.674	***		
	1_2	.966	.828	.063	15.265	***		
신체적 요인	2_8	1.000	.807	-	-		0.565	0.866
	2_5	1.136	.719	.071	12.601	***		
	2_9	1.185	.636	.078	10.894	***		
	2_7	1.164	.760	.076	13.480	***		
	2_6	.829	.660	.073	11.383	***		
사회/관계적 요인	3_3	1.000	.808	-	-		0.659	0.885
	3_4	1.136	.826	.073	15.627	***		
	3_1	1.185	.836	.075	15.878	***		
	3_2	1.164	.889	.068	17.197	***		
정서적 요인	4_4	1.000	.841	-	-		0.774	0.932
	4_1	.914	.818	.056	16.442	***		
	4_3	.956	.831	.057	16.846	***		
	4_2	1.028	.875	.056	18.221	***		
만족	6_4	1.000	.775	-	-		0.748	0.922
	6_1	1.130	.859	.070	16.092	***		
	6_2	1.232	.944	.068	18.191	***		
지적/내면적 요인	6_3	1.255	.937	.070	18.022	***	0.626	0.909
	5_2	1.000	.743	-	-			
	5_3	1.011	.753	.081	12.507	***		
	5_6	1.113	.763	.088	12.678	***		
	5_5	.975	.727	.081	12.036	***		
	5_1	.912	.703	.079	11.621	***		
	5_4	1.075	.803	.080	13.398	***		

평균분산추출의 제공근과 변수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평균분산추출의 제공근은 모든 요인에서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를 상회하고 있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측정 개념들의 관계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연구 가설에서 설정한 관계와 일치하고 있어 기준타당성도 충족하였다. 또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에서도 집중-수렴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10〉 판별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자연/ 환경	사회/ 관계	신체적	만족	지적/ 내면	정서적	CR	AVE	\overline{AVE}
자연/환경	1						0.881	0.711	0.84
사회/관계	.361**	1					0.885	0.659	0.81
신체적	.724**	.555**	1				0.866	0.565	0.75
만족	.490**	.497**	.587**	1			0.932	0.774	0.88
지적/내면	.552**	.584**	.714**	.721**	1		0.909	0.626	0.79
정서적	.629**	.549**	.740**	.619**	.717**	1	0.922	0.748	0.87

**p<0.01. N=281

3) 모형 및 가설 검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χ^2 : 462.803(df=283), p<0.001, GFI: .887, AGFI: .860, RMR: .038, NFI: .914, IFI Delta 2: .965, CFI: .96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치임이 확인된다.

〈표 11〉 모형 검증 결과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C. R.(t-value)	p
H1	자연/환경적 → 정서적	.170	.070	2.212	.027
	사회/관계적 → 정서적	.116	.052	1.935	.053
	신체적 → 정서적	.335	.105	3.239	.001
	지적/내면적 → 정서적	.316	.089	4.008	***
H2	자연/환경적 → 만족도	.062	.084	.766	.444
	사회/관계적 → 만족도	.075	.062	1.198	.231
	신체적 → 만족도	.040	.129	.363	.717
	지적/내면적 → 만족도	.513	.119	5.545	***
H3	정서적 → 만족도	.141	.100	1.600	.110

인지적 체험 요인과 정서적 체험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자연 환경적 체험은 정서적 체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 환경적 체험은 정서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관계적 체험의 경우, 정서적 체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체험은 정서적 체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체험이 정서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내면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간의 영향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내면적 체험이 정서적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인지적 체험 요인과 여가 체험 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연 환경적 체험의 경우, 여가 체험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적 체험과 신체적 체험도 여가 체험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내면적 체험과 여가 체험 만족과의 영향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내면적 체험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정서적 체험과 만족도간의 영향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체험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가설 검증 결과

구분	가설 내용	결과
H1	한방의료관광객이 지각한 인지적 체험은 정서적 체험에 영향을 미친다.	부분채택
	- 자연/환경적 체험 요소는 정서적 체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 사회/관계적 체험 요소는 정서적 체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 신체적 체험 요소는 정서적 체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 지적/내면적 체험 요소는 정서적 체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H2	한방의료관광객이 지각한 인지적 체험은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부분채택
	- 자연/환경적 체험 요소는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 사회/관계적 체험 요소는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 신체적 체험 요소는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 지적/내면적 체험 요소는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H3	한방의료관광객이 지각한 정서적 체험은 여가 체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V. 결 론

본 연구는 한방 의료관광 체험의 여가심리학적 차원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여가심리적 구조에는 인지적 체험과 정서적 체험 차원의 형태로 범주화되었다. 인지적 체험 차원은 '자연 /환경적', '신체/감각적', '사회/관계지향적', '지적/내면적 요소들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정서적 체험 차원, 체험 만족간의 구조적 관계까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체험 차원과 정서적 체험 차원의 관계에서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험 만족과의 관계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정서적 체험 차원과 체험 만족간의 관계에서도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체험 중 자연환경적 체험이 정서적 체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한방 의료관광객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지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 관광 안에 자연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한방의료 체험은 자연환경적 체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관계적 체험은 정서적 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방의료관광 체험이 사회관계적인 대인 교류감 보다는 한방의료 체험 자체에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음으로, 신체적 체험은 정서적 체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방 의료관광 체험은 침, 뜸, 부황 등의 한방진료 및 한방차 시음 등을 통해 신체적 휴식 및 신체적 긴장 해소 등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신체적 휴식 또는 신체적 치료 등의 체험이 있을 때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지적/내면적 체험도 정서적 체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관광객들은 한방의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자신건강에 대한 진단 및 건강 관련 제반지식을 쌓게 되며, 한방의료 체험을 특이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습득 등의 제반적인 지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도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인지적 체험과 여가 체험 만족과의 관계에서 체험 유형별 관계를 살펴보면, 자연환경적 체험이 체험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여가 체험이 한방 소재이다 보니 친환경적 요소들이 많아 정서적 체험에는 영향을 주지만, 완벽한 주변 자연환경 조성 등의 미흡은 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나타내며, 자연으로부터의 심신 휴식도 체험 만족 제고에 주요 부분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사회관계적 체험이 체험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사회관계적 체험이 여가 참가 동반자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체험 제공자와의 교류도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방의료 관광은 진단방법 및 치료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의사와 환자와의 상호신뢰 및 교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한방의료 관광은 체험활동 동안 체험 제공자와 체험자간 상호작용의 환경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체험 제공자들과의 교류의 빈도도 잦다. 대체적으로 한방의료관광객들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 진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며, 체험 제공자들로부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체험 제공자들은 체험자의 신체에 대한 진단, 건강에 대한 상식 등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환대의 자세로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관계적 체험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요소인 신체적 체험도 체험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한방의료관광 체험 활동에는 침술, 허브를 활용한 치유법, 마사지, 명상, 요가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신체적 휴식 및 신체적 편안함을 제공함으로써 체험자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전해준다. 하지만 한방의료관광은

휴식형 신체적 체험을 유도할 뿐 활발한 아웃도어 형태의 적극적인 신체적 체험 활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방 의료관광의 신체적 체험이 정서적 체험에는 영향을 주지만, 여가 체험 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지적/내면적 체험이 여가체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최근 웰빙 트렌드에 따라 건강 관련 지식함양 및 관심 증대 등의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지적, 내면적 체험이 정서적 체험 및 여가체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한방의료관광지에서는 단순히 진료 및 진단, 침, 뜸 등의 물리적 요소만이 전개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준비하여 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료 또는 체험시 체험 제공자를 통한 정보 전달, 영상 자료, 시각 자료 등을 이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보 전달 채널의 다양화도 중요하다. 특히 한방의료 체험임을 감안한다면, 체험 제공자와 체험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달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유추되므로 사전 상담, 체험 활동시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가설인 정서적 체험과 체험 만족간의 관계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체험 참가자들이 한방의료 체험으로 편안함과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이 만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참가자들의 높은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방의료 체험은 참가비용이 저렴한 편이 아니며, 한방의료 관광지의 접근성 또한 편리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 및 일정 등을 여느 여가활동 못지않게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여가체험활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체험에 대한 기대 심리는 높지만, 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관광 체험의 동기가 우선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기 유형에 맞는 예방 체험, 진료체험 또는 치료 체험 등의 한방의료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여가 활동을 소재로 한 한방의료관광 고유의 체험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여가관이 아닌 한국 고유의 여가 체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한방의료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보다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체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근거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방이라는 구체화된 의료관광 영역으로의 학문적 접근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에 있어 일부 한계점이 있다. 즉, 본 연구는 경주, 제천 등 편중된 지역에서 단기간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한방의료관광 체험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한방의료관광지별 체

험 프로그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더 정교한 표본 추출기법의 사용과 조사지역의 확대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근 외국인들의 한방의료관광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차이를 규명하여 외래관광객의 한방의료관광체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후학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운진·김나민·이문규(2008). 현상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여행단계별 소비감정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1), 209-233.
- 고동완(2003). 스키활동에서 위험지각과 감정적 반응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7(2), 49-69.
- 고동우(2002). 여가동기와 체험의 이해: 이중 추동 모형과 이중통로 여가 체험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3(2), 1-23.
- 권익현·유창조(1997). 레저 시설 내에서의 소비자 감정적 반응에 대한 실증연구: 스키 리조트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1), 59-78.
- 경남발전연구원(2010). 『한방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 산청군을 중심으로』.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소혜(2008). 고급문화 예술 여가 참여자의 여가동기, 여가체험 및 사후 평가 간의 관계: 박물관 체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3). 노인여성의 여가무용 참여에 따른 정서체험과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윤철민(2011). 테마파크 내 체험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구성개념의 영향력 검증. 『고객만족경영연구』, 13(3), 65-84.
- 김창섭(2008). 노인의 관광정책성이 관광경험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혜영(2003).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로서 스노보드 참여자의 여가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9(2), 17-40.
- 오정학·김유일(2001). 주제공원 이용자의 감정반응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3), 285-305.
- 윤병국·이은미(2012). 한국의 한방의료관광 동향과 연구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

광·레저연구』, 24(6), 119-137.

- 윤병국·최성환·최원범·남승민(2012). 한방의료체험을 통한 한방의료관광 인식이 재 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6(1), 133-156.
- 윤설민·이태희(2012). 테마파크에서의 체험이 감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24(2), 289-308.
- 이충기·유지윤·임은순(2010).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경북한방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19(1), 179-192.
- 정성환(2008). 테니스 동호인의 여가경험과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조·전병길(2009). 템플스테이 체험의 여가심리학적 모형. 『관광학연구』, 33(2), 99 -122.
- 최미란(2002). 여가스포츠활동의 정서체험과 사회구조적 요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승국·김화경(2005). 한방관광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11(1), 231- 252.
- 하경희(2011). 웰니스 투어리즘과 한방의료관광. 『Tourism Research』, 32, 35-5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Beard, J. G., & Ragheb,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Bigne, J. E., Andreu, L., & Gnoth, J.(2005). The Theme Park Experience: An Analysis of Pleasure, Arousal and Satisfaction. *Tourism Management*, 26(6), 833-844.
- Bigne, J., Mattila, A. S., & Andreu, L.(2008). The impact of experiential consumption cognitions and emotion on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22(4), 303-315.
- Chhetri, P., Arrowsmith, C., & Jackson, M.(2004). Determining Hiking Experiences in Nature- based Tourist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25(1), 31-43.
- de Rojas, C., & Camarero, C.(2008). Visitors' experience, mood and satisfaction in a heritage context: Evidence from an interpretation center. *Tourism Management*, 29(3), 525-537.
- Farber, M. E., & Hall, T. E.(2007). Emotion and Environment: Visitors' Extraordinary Experiences along the Dalton Highway in Alask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2), 248-270.
- Glaser, B. G., & Strauss, A. 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ociology Press.

- Knutson, B. J., & Beck, J. A.(2003), Identifying the dimensions of the experience construct: Development of the model. *Journal of Quality Assurance in Hospitality & Tourism*, 4(4), 23-35.
- Knapp, M.(1976). Predicting the 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5), 596-604.
- Ladhari, R.(2007). The movie experience: A revised approach to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454-462.
- Lee, Y. K., Dallito, J., & Howard, D.(1994). The complex and Dynamic Nature of Leisur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195-211.
- Lee, B., Shafer, C. S., & Kang, I.(2005). Examining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 of Self, Episodic- specific Evaluations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a Leisure Activity. *Leisure Sciences*, 27(2), 93-109.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2nd ed.) : An Expanded Sourcebook*. Thousand Oak, Calif, Sage.
- Neulinger, J., & Raps, C. S.(1972). Leisure Attitudes of an Intellectual Elit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3), 196-207.
- Oh, H., Fiore, A. M., & Jeoung, M.(2007). Measuring experience economy concepts: Tourism applic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2), 119-132.
- Patton, M.(198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Plutchik, R.(1994). *The psychology and biology of emotion*.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Russell, R. V.(1996). *Pastimes: The Context of Contemporary Leisure*. Dubuque, IA: Brown & Benchmark.
- Van Raaij, L.(1987). Predic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from behavior, normative and control beliefs: An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13, 185-204.
- Williams, D. R., Scheryer, R., & Knopf, R. C.(1990). The Effect of Experience Use History on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Motivations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1), 36-54.

2012년 12월 19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3년 4월 16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3년 4월 27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